

간화선 중흥을 위한 전국 선원장 초청 대법회 지상중계 ④

주제 : 마음은 무엇인가



■ 함주 스님 1941년 전북 순창에서 출생한 함주(含周)스님은 1960년 대구 동화사에서 입산 출가해, 70년 수덕사에서 일타 스님에게 비구계를 받고 백양사, 해인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은사는 금오 스님. 현재 전국선원수좌회 상임대표를 맡아 간화선종 진장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조계종 수행지침서' 발간 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마음은 무한한 힘입니다. 불가사의한 능력입니다. 마음이 착하면 착한 사람이라 하고, 마음이 악하면 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축생의 마음을 가지면 축생이 되고, 미물과 곤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덕스럽고 인자하면 덕인이라 하고, 성현의 마음이면 성현이고,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면 부처님이 됩니다. 이 세상, 만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축생에서부터 저 미물 곤충에 이르기까지, 또 인간부터 성현, 부처님까지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세계는 다 틀립니다. 인간은 인간의 업에서 이 세상을 보고, 또 삶을 가려가고 있습니다. 개개인은 각자의 업연을 따라 이 세상을 삽니다. 우리보다 차원을 달리하는 성현의 경계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능력은 무한해서 생각하면 느끼고, 축생의 마음이면 축생의 행이 이루어집니다. 행이 이뤄지면, 자연히 습관이 되고 업연이 돼 그 이상을 못 보게 됩니다. 성현의 마음을 가지면 성현의 행위를 해야 하고, 안하면 안 됩니다. 또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싶은 것 다 하면, 또 그렇게 해서 바를 성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에 무한한 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집에서 아들을 군대에 보냈다고 해 봅시다. 그런 집의 어머니, 할머니는 밖에 나가서 군인을 보면 전부 다 아들처럼 느껴 집니다. 그것은 마음에 아들에 대한 간절함이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밖에서 세가 울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새소리를 슬프게 들어, '참으로

‘요령껏...쉽게...’ 이것이 病



함주 스님 (법주사 총지선원장)

새소리가 슬프게도 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쁘게 노래를 잘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짜증스런 소리라고 합니다. 개인의 감정에 의해 그 새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새소리를 참으로 바르게 알아듣는 것은 필요요? 새가 슬프거나 기쁘게 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 슬픈 감정, 자기에게 있는 모든 감정을 '딱' 놔버려야 합니다. 편안하게 그 새소리에 임하면, 그 새가 기쁘게 슬프게 우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여기 참 새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은 제각기 다른 감정에 의해 들읍니다. 그래서 무한한 힘을 가진 마음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잠깐 있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무시검래로 있어버려, 이제는 근본이 뒤틀린 감도 안 옵니다. 우리 중생의 삶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에는 무한한 힘과 법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고 허송세월해왔습니다. 그것도 갖은 고통과 고뇌 속에서 이제까지 삶을 이어왔습니다. 때론 축생도 되고, 때로는 지옥도 가고 천당도 가고, 사실 가기는 어디를 갑니까? 다 자기 마음에 다 있는데요. 때로는 축생도 지옥도 인간세로도 만들지만, 마음이 다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 알지요? 일체가 마음으로 조작된 거라는 말입니다. 마음 밖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안 그렇습니다. 허망한 경계에 의지해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본래 갖춰진 대능력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보퐁 각오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먹고 싶은 것 다 하면, 또 그렇게 해서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힘들습니다.

무한한 능력이 나한테 있는데 왜 그것을 버리고 고생을 합니까, 하면 됩니다. 하면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는데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기 싫어서 게으름을 피우고, 자꾸 일을 편하게 하려고 이러 저러 요령을 피우면 오히려 힘이 더 드는 겁니다. 우리 중생의 업이라는 것

은 어떻게 하든 더 편하게 쉽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병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다 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이유는 하나를 얻으면 둘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또 허망한 경계에 치우쳐 구하려고 합니다. 욕심때문입니다. 허망한 경계에서 얻으려는 그것이 바로 병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그것이 공부입니다. 그 인연과 업연, 근기에 따라 공부법이 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참선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간화선 이 때, 모든 일을 그르치게 만듭니다. 이른바 대도(大道)를 공부하는 자세가 이래야 합니다. 부처님에게 천 배 만 배 기도를 해봐도, 이런 마음이 없으면 공덕이 안 됩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하면 큰 공덕을 성취할 수 있어요. 만사가 다 이렇게 이뤄지는 그것이 바로 불성(佛性)입니다. 그

그러면 헛된 욕심과 무리하고 과도한 생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순수해져, 번뇌 망상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욕심과 비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에서 모든 것을 취해서 자기 알음알이로 일어서 하려하고, 그것이 안 되니 망상 번뇌가 일어나 다 그르치는 겁니다.

마음이 순수하면 편해집니다. 그것이 제 일입니다. 돈과 권력이 있고, 주변에서 칭찬한다고 해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직관(直觀)이 생깁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되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감정이 치성해집니다.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면 그것이 업인(業因)이 돼, 모든 일을 그르치게 만듭니다.

이런바 대도(大道)를 공부하는 자세가 이래야 합니다. 부처님에게 천 배 만 배 기도를 해봐도, 이런 마음이 없으면 공덕이 안 됩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하면 큰 공덕을 성취할 수 있어요. 만사가 다 이렇게 이뤄지는 그것이 바로 불성(佛性)입니다. 그

러니까 인격을 먼저 닦으십시오.

마음이 불편하면 중생의 마음이 동합니다. 오만가지 생각이 푹푹 뿜어 나옵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해 합리적이면 자기 점검이 됩니다. 감히 알지 못한 사람이 좀 알았다고 하면서 해석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실 도(道)하고 아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도를 말하면 되겠습니까. 또 그런 분을 스승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순수하면 모든 것을 바로 보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보입니다. 그르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마음이 편해야 간절함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스스로 점검하는 지혜가 열립니다. 선지식도 그렇습니다. 선지식은 형상으로만 있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의해 공부할 한다면 거기에 맞게 선지식이 출현합니다. 그 근기에 맞도록 말입니다. 또 어떤 형상을 필요로 하면 형상이 되고, 형상이 아닌 어떤 무형으로써 마음의 공부를 원한다면 선지식이 무형으로 출현합니다.

우리가 대도를 성취하고 중생의 업을 단

마음 편해야 간절함 생기고 스스로 점검하는 지혜 열립니다

간화선 닦기 전에 진실한 인격 먼저 갖춰야

문에 주장하는 겁니다. 하기 쉽고, 열심히 하면 빨리 성취하니까 간화선이 제일 좋다고 하는 겁니다.

간화선을 하기 전에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 법(공부)은 최상승인이 아니면 감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최상승인을 우리말로 하면 '대(大)인격인'입니다. 먼저 대인격인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대인격인이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참선만 하면 된다고 하니 어려운 겁니다. 수승한 근기가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진실해야 합니다. 가장 진실하고 순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다 안 됩니다. 그럼 가장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이 뭐냐? 그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이가 정한 바, 상황에 맞게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모든 이가 옳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꽃샘추위에도 불자들이 대웅전 앞마당에 앉아 함주스님의 법문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받아 읽고 있다.

7일 명상으로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로드프라나 명상이란?

프라나(감로, 생기) 호흡법과 로드프라나 36가지의 각종 명상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상승 시키는 기법.

◆로드프라나 명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 ▶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 진다
잠자던 몸이 깨어나 몸속에 황금빛 광채가 생기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원을 이루고 개인의식이 무너져 우주의식으로 확장되어 집중력, 이해력이 증대되어 지혜의 눈이 생긴다.
- ◆ 누구나 길을 찾아 원하는 삶을 열어준다.
- ◆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고요의 평원 속으로 이끌어 준다.
- ◆ 삶에 지친 몸과 마음에 프라나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 ◆ 가진 것은 잃게 되고 배운 것은 남듯이 내가 클수록 장애가 심하고 내가 작을 수록 세상이 가벼운 것. 간, 쓸개 빼고 살면 부자가 될 수 밖에 없고 속을 텅 비우면 모든 일이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진다.
- ◆ 지금까지 길을 찾지 못한 것은 개체의식, 고정관념, 자기의 틀을 벗어 던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기육백공, 선밀공, 프라나호흡, 프라나 동작, 36장 관조 · 관음법을 통하여 우주의식으로 확장시키면 스스로 알지 못했던 길을 찾게된다.

◆길타기 3단계

- ▶ 1단계 : 능력확대 (의식확장, 시, 노래, 춤, 연주, 그림 등)
- ▶ 2단계 : 지혜의 눈 (달님, 예시, 투시, 치유 능력)
- ▶ 3단계 : 전인완성 (본래의 자리에 들)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 과정)

다른 차원의 세계 (우주세계)로 못가는 것은 의식과 생각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식 집중을 통해 영혼체 정신체 인 본신을 만들어서 유체이탈을 통하여 천문 제6세계까지 영체와 우주세계를 연결한다.

◆전문열기

- 제 1세계 (우주세계, 합일신계) → 제 6세계 (우주세계, 자제신계)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과정)

◆명상지도자 양성과정 (1년)

- 자격 : 24세 ~ 33세까지
- 학력 : 고졸이상
- 수련과정 : 로드프라나 36장, 프라나호흡, 난소호흡, 원불공, 관조, 관음, 관상법수련, 선밀공, 오기육백공

로드프라나 명상센터 본부
대구광역시 남구 봉곡1동 729-4
☎ 053)471-0433

인등 연등 전구의 혁신

귀의삼보하늘고 불자기업 기보전자산업에서는 기존의 인등전구와 연등전구의 단점(짧은수명, 고유지비, 화재위험, 낮은견고성)을 보완하여 시찰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교체로 유지보수가 필요없는 반영구적인 인등 연등용 LED전구로 바꾸어보십시오.



인등용 LED전구



기존 필라멘트 전구용 인등

특징

- 기존 설비에 전구만 교체 사용 가능하며 비용이 절감됩니다.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수명이 반영구적 입니다.
- 발광 효율이 높고 소비전력이 낮아 유지 관리비가 감소 합니다.
- 반도체로 되어 있어 가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 전구말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습니다.



연등용 LED전구



기존 필라멘트 전구용 연등

특징

- 일반 소켓 220용에 다용도로 사용할수있습니다.
- 별도 전선 교체없이 전구 교체 가능합니다.
- 기존의 전구 소켓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 안정된 전원을 공급 할 수 있습니다.
- 다 방향으로 빛을 조명 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증



특색장부

제품문의처

황금 LED 조명 - 기보전자산업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73(세운상가 가동 가열 특 3호)
TEL : 02)5566-9098, 7550 FAX : 02)2266-7557 E-mail : kibosa@kornet.net

